FX Market Daily

2026-10-07

전일동향

프랑스 재정 우려 완화에... 1,338.1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350.60원(15:30 기준) 대비 8.60원 하락한 1,342.0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프랑스 재정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유로화가 다시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1,338.1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8.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45.37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42.00	1346.70	1338.10	1338.10	1343.40
엔화	848.86	852.54	845.37	845.37	-
유로화	1504.71	1510.23	1503.07	1506.26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82	-2.95	-6.59	-15.02
결제환율(수입)	-0.36	-1.66	-4.54	-11.3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강달러 완화에...1,33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9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43.60, 15:30 기준) 대비 5.35원 하락한 1,337.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강달러 압력 완화로 하락 전망한다. 프랑스의 유력 대선 주자가 재정 건전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프랑스 국채금리가 10bp 넘게 하락했고, 유로화 가치가 반등했다. 여기에 뉴욕증시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도 원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8월 무역수지 적자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도 달러에 부담을 더하며, 금일 환율은 하락 우위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환율이 연저점에 접근함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33.50 ~ 1343.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7576.9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35원↓
	■ 美 다우지수 : 51521.28, +253.38p(+0.4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61.7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68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